

섬유로 번 돈 섬유산업 위해 쓴다

사재 100억 털어 장학재단 설립

‘국내 최고의 나염장이’ 박종근 한영나염 회장. 열네 살 어린 나이로 업계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지 어언 63년째다. 평생을 나염 외길만 걸어온 그가 지난해 사재 100억 원을 털어 장학재단을 설립한 일이 뒤통게 알려졌다. 목표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 이를 위해 인재 양성, 국내외 학술 활동 지원, 섬유 관련 공모전 운영 등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박종근 회장은 지난해 처음 주최한 '재단법인 한영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을 수년 내에 권위 있는 국제전으로 키워 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한영

한국 나염의 저력을 세계 시장에 한껏 과시하고 있는 한영나염. 전통과 첨단을 넘나드는 우수한 기술과 뛰어난 생산능력으로 국내 나염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섬유가 사양산업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와중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입어 국내 나염업계에서 유일하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영을 50여 년간 이끌며 ‘국내 최고의 나염장이’로 우뚝 선 박종근(77) 회장.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태어난 그는 이미 열두 살 때부터 부친을 따라 5일장까지 20리 길을 걸

어가 물건을 팔아야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혹독한 가난을 겪었다. 생소하던 나염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부산의 한 시장에 위치한 허름한 공장에 취직한 열네 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찬이라고는 새우젓뿐인 밥을 겨우겨우 얻어먹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염의 세계에 폭 빠져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다.

책을 읽다 들킬 때마다 호되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다락방에 숨어 공부할 정도로 책을 손에서 놓기를 싫어했다. 이때에 흘린 땀방울이 공장장을 거쳐 서울의 회사로 이직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 작은 나염공장을 20대의 젊은 나이에 인수해 눈부신 성장을 일구고 뒤통게나마 대학원까지 마친 것도 이런 집념과 노력의 소산일 터.

자랑스러운 섬유 인생

나염과 함께 눈물도 흘리고 보람도 느끼며 지내온 63년 세월은 국내 나염산업 발전의 궤적과 고스란히 일치한다. 주변에서 박 회장을 ‘국내 나염업계의 아버지’, 한영나염은 ‘나염업계의 사관학교’로 각각 일컬으며 존경하고 따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섬유 사랑에 대한 그의 진정성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사건’까지 겹쳐져 화제다. 장학재단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박 회장이 국내 섬유업계 발전을 위해 ‘장학재단 한영’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2월 무려 100억 원을 선뜻 쾌척한 것이다.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당초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박종근 한영나염 회장

사진_연철DB

도덕적 책임 실천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도리' 라는 마음에 재단 설립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좋은 일은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성화 덕분에 뒤늦게 공개됐다. 피땀 흘려 어렵사리 모은 재산을 털어 재단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섬유산업을 통해 부를 얻었으니 이제는 섬유산업과 사회에 부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박 회장의 소박한 설명이 새삼 돋보인다.

국내 섬유산업은 최근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용틀임하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박 회장은 특히 대학교에서 섬유 관련 학과가 축소되고 배움이나 취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섬

유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디자인과 연구·개발 인력이 줄어드는 현실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결국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귀착될 것이 뻔히 내다보였기 때문이다. 재단 설립 이전부터 '미래의 꿈나무'인 섬유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안겨 주고자 회사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산학 협동을 활발히 모색해 온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첫 장학금 지급, 첫 공모전 주최

재단의 최대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으로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과 국내외 학술

장학재단 한영 박종근 이사장 나염인생 60주년 및 (주) 한영나염 창립 반세기 기념식



장학재단 한영은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3억 원 정도를 각종 장학사업과 공모전 개최 등에 쓸 예정이다. 사진제공_한영

활동 지원, 섬유 관련 공모전 운영 등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사재를 털어 재단을 설립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박 회장은 “나염을 통해 평생 모은 돈을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단담히 말할 뿐이다. 첫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해 12월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섬유센터에서 한영나염 창사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섬유 관련 학과 재학생 43명에게 장학금 8천여만 원을 직접 수여했다. 올해에는 대상자를 더욱 늘려 약 1억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제1회 재단법인 한영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을 주최하고 입상자 245명을 선정했다. 총상금 5천만 원을 넘는 이 공모전은 국내 섬유 관련 공모전 가운데 가장 큰 ‘대한민국 텍스타일 디자인 대전’과 동일한 규모로 매년 하반기에 열린다. 몇 년 안에 국내를 대표하는 공모전을 뛰어넘어 권위 있는 국제전으로 키운다는 게 재단의 야심찬 전략이다. 한국의 수준 높은 디자인 실력과 유능한 인재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나염 사랑, 나염 인생, 그리고 사회적 책임

성공한 기업인이라도 사재 털어 재단 설립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그는 돈을 물 쓰듯 쓰지는커녕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는 일이 거의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

다. 서울 방배동 집에서만 약 30년을 살고 있고 어찌다 가족에 떠밀려 백화점에 옷 한 벌을 사러 가서도 한참을 망설이다 빈손으로 나오기 일쑤다. 회사에서도 회장에 걸맞지 않게 검소한 생활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DNA는 자식들에게도 유전된 모양이다. 아버지가 큰돈을 자기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을 때 두 아들과 두 딸 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아버지에 이어 나염 장이의 길을 기꺼이 택한 큰아들은 박 회장을 ‘업계 최고의 전문가이자 삶의 커다란 스승’으로 깎듯이 모시고 있다. 박 회장은 그런 아들에게 한영나염을 훌가분하게 넘기고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박 회장이 경영자로서 지난 50년을 설 새 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아들이 물려받아 ‘100년 장수 기업’의 나머지 반을 달려갈 참이다.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재단 설립으로 또 하나의 뜻 깊은 일을 이룩한 박 회장은 “평생을 섬유인으로 살아온 만큼 앞으로 우리 나라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한국 섬유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 속에 한국나염을 더욱 각인시키는 그 날까지 그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